



제목	Democracy, Islam, and Secularism in Turkey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Columbia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6. 2. 21.
저자	Ahmet Kuru, Alfred Stepan(편집자)
출판도시	New York
페이지수	226
ISBN 또는 ISSN	978-0231530252

**내용 요약**

진보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홍보하면서 터키가 세계 강국으로 부상하는 동안, 터키가 선택한 여러 가지 정책들은 동서양 관계에서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특히 터키의 거침없는 행동 저변에는 역사적·사회적·종교적 배경이 깔려있는데, 말하자면 터키의 민주주의와 이슬람, 그리고 종교적인 세속주의가 그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터키가 이러한 요소를 자신들의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따라서 이 책에는 터키의 종교적인 정체성을 규명하는 에세이부터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과 관련하여 터키를 둘러싼 논쟁과 국제적인 관심, 터키의 대응 등을 주제로 하는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다양성을 내세우는 오스만 경영을 재조명하고, 1923년 터키 공화국을 건국한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의 이름을 따서 만든 터키 식 세속주의 케말리즘의 역사적 뿌리를 재검토하며, 복수의 사회이면서 단일 국가체제인 터키 내부를 들여다본다. 터키와 프랑스, 세네갈을 비교하기도 하고, 터키의 군대와 사회, 정당 등을 다루기도 하며, 터키의 헌법재판소와 정치적 위기를 다루기도 한다. 또한 유럽의 기독교민주당과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및 정의개발당의 역할, 그리고 '터키 식 모델'을 다룬 논문도 들어 있다.

논문을 기고한 사람들은 터키 식 세속주의에서 '보호자' 역할을 하는 군대와 민주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최근에 헌법을 개정한 터키 정부의 의도 또는 저의,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와 이슬람 활동주의의 상관관계 및 상호 작용 등에 특별히 예의주시한다. 이 책이 한편으로는 현대 터키의 정치적인 진화 과정을 과거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생생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또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인 후진성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저항한다는 점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고품격의 저서에 속한다.